

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7. 6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10
V. 종합 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300천 Km ²	G D P	3,045억 달러 ('16년)
인구	1.0억 명 ('16년)	1 인 당 GDP	2,978달러 ('16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페소(Peso)
대외정책	친서방 노선	환율(달러당)	47.50 ('16년 평균)

- 필리핀은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으며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 섬, 셀레베스 섬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서국가임.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음.
- 코발트, 금, 구리, 니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며,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및 업무프로세스 아웃소싱(BPO)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해 옴.
- 그러나, 수출구조가 특정국 및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. 또한, 취약한 제조업 기반 개선, 인프라 구축은 향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주요 과제임.
- 계층 간의 심한 소득격차,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은 사회적 불안 요인임. 최근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.
- 2016년 6월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은 아키노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, '마약과의 전쟁(Drug War)' 등 부정 부패 척결 등을 추진하며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 ^e	2017 ^f
경제성장률	7.1	6.1	6.1	6.9	6.5
소비자물가상승률	2.9	4.2	1.4	1.8	3.3
재정수지 / GDP	-1.4	-0.6	-0.9	-2.4	-2.8

자료: IMF, EIU.

□ 인프라 투자 확대로 6.5%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

- 2014~15년 경제성장률은 2013년 11월 하이엔 태풍으로 인한 농업 및 제조업 부문의 피해와 함께, 전 세계 저성장 및 중국경기 둔화세 지속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6.1%를 기록함.
- 2016년 경제성장률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등에 따른 견고한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아세안 주요국 중 최고 수준*인 6.9%을 기록함. 2017년에도 두테르테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6%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.

※ 두테르테 정부는 '17년 인프라 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13.8% 증가한 8,607억 페소(GDP의 5.4%)로 책정하였으며, 점진적으로 인프라지출을 GDP의 7.4%까지 상향하여 2022년까지 9조 페소를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.

* '16년 아세안 주요국 경제성장률: 베트남 6.2%, 인도네시아 5.0%, 말레이시아 4.2%, 태국 3.2%

□ 식료품 가격 상승, 소비세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률 상승 추세

- 2014년 물가상승률은 태풍 피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, 담배세 및 주류세 인상 등으로 4.2%까지 상승하였으며, 2015년에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*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화로 1.4%로 둔화됨.

* 국제유가(WTI, 달러/배럴): 98.0('13) → 93.2('14) → 48.7('15) → 43.3('16)

- 2016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, 풍작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1.8%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. 2017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, 소비세 인상* 및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3% 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- * '17년 5월 하원에서 통과된 종합세제개혁법안은 석유제품,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함

□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전망

- 필리핀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2014년 기준 아시아 지역 평균 (25.6%)에 훨씬 못 미치는 15.7% 수준으로, 재정지출에 대한 관료제 폐단 등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저(低)지출을 보임.
- 2015년에는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지출 등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-0.9% 수준으로 소폭 증가함.
- 2016년에는 인프라 및 교육·보건 서비스 지출 등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-2.4%로 확대되었으며, 2017년에도 두테르테 정부의 인프라 등 예산 확대 편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-2.8%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투자 및 R&D 투자 부진

- 필리핀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(2007~2009년 평균)은 2.6% 수준으로 동아시아·태평양 지역 평균인 3.8% 대비 낮은 편이며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.
- 1인당 GDP 대비 학생당 중등교육비 지출은 9.1%(2008년)로 방글라데시 (12.1%, 2011년), 인도네시아(9.8%, 2013년)보다 낮은 수준임.
- 또한 GDP 대비 R&D 투자가 2013년 기준 0.1%에 불과해 파키스탄 (0.29, 2013년), 베트남(0.19, 2011년)에 비해서도 낮으며,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.

□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따른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지속

- 필리핀은 과거 농업·산림자원 수출 위주의 산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. 이에 자본재, 소비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

지속하고 있음.

- 제조업이 필리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*하여 2015년 기준 20% 수준이며, 제조업이 취약한 배경으로는 전력·도로망 등 낙후된 인프라**, 제조업 육성 정책 미흡 등이 거론됨.

* GDP 대비 제조업 비중: 26%(1980년) → 25%(1990년) → 24%(2000년) → 20%(2015년)

**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6-2017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따르면, 필리핀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38개국 중 도로 106위, 전력공급 94위로 하위권에 속함.

□ 특정국에 편중된 수출구조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높은 의존도

- 2016년 기준 일본(21.7%), 미국(16.0%), 홍콩(10.0%), 중국(9.3%)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동 국가들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임.
- 한편, 필리핀은 세계 4대 해외인력 송출국으로서 2015년말 기준 해외근로자가 인구의 19%에 달하며,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이 GDP의 8.8% 수준으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.

※ 해외근로자의 송금액(억 달러): 230('13) → 246('14) → 256('15) → 269('16)

※ GDP 대비 해외근로자 송금액 비중(%): 8.5('13) → 8.7('14) → 8.8('15) → 8.8('16)

-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외환보유고 유지, 국내소비 촉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, 장기적인 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개발 잠재력 보유

- 필리핀은 세계 5대 광물 부국으로 코발트, 금, 구리, 니켈의 추정 매장량이 풍부함. 또한 개발허가권 부여 면적이 광물 매장 지역의 2%에 불과하여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큼.
- 대법원의 1995년 광업법 합헌 판결(2004년)로 외국인의 자원개발 투자가 허용되었음. 다만, 두테르테 정부 출범 후 환경 보호를 이유로 23개 광산에 폐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광산 규제*가 엄격해짐.

* 필리핀 정부가 광산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은 연간 약 700억 페소 수준이나, 두테르테 대통령이 세수 확보보다 환경 보호를 더 강조함.

□ 세계 1위 수준의 BPO 산업환경 유지

-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, 저렴한 인건비,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,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(Business Process Outsourcing: BPO) 산업이 성장세*를 지속하고 있음.

* BPO는 콜센터를 비롯해 데이터 입력,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각종 비즈니스에서 수행되는 업무 아웃소싱 전문산업을 의미하며, 세계 BPO 시장은 2020년까지 약 2,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-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Tholons의 2016년 100대 세계 BPO지역 순위에 따르면, 필리핀은 세계 1위 BPO지역인 인도의 벵갈루루에 이어 마닐라와 세부지역이 각각 2위와 7위를 차지함.
- 다만, 현재 필리핀 BPO 산업의 약 70%가 미국기업의 아웃소싱인 것을 감안할 때, 미국 트럼프 정권의 국내기업 보호정책은 동 분야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중소기업 진입을 위한 필리핀개발계획(PDP) 추진

- 2017년 3월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(NEDA)은 두테르테 정부 출범 후 2016년 10월 수립한 장기개발계획인 ‘국가비전 2040(Ambisyon Natin 2040)’ 구현 및 상위중소소득국가(high-middle income country) 진입을 위한 필리핀개발계획(Philippine Development Plan)*을 발표함.

* 동 계획은 2022년까지 ① 중기 경제성장률 7~8% 달성 ②1인당 국민소득 5,000 달러 이상으로 증가 ③빈곤율 21.6%에서 14%로 완화 ④실업률 5.5%에서 3~5%로 축소 등을 목표로 함.

- 특히,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관협력사업(PPP)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2022년까지 연간 인프라 지출을 GDP 대비 5.1% 수준('16년)에서 7.4%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.

- 또한, ‘2017 투자유치 우선계획(Investment Priority Plan)*’을 통해 소득세 감면 등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동년 발표될 제 11차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완화 등의 투자정책을 통해 필리핀개발계획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임.

* 필리핀 투자청(BOI)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계획으로 '17년에는 특히 제조업, 농업·수산업·임업, 인프라 및 물류 등 분야에 중점을 둬.

□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가입으로 인프라 개발 촉진

- 두테르테 대통령은 주요 인프라 사업의 추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2016년 10월 AIIB 가입을 승인하였으며, 동년 12월 필리핀 상원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AIIB 창립회원국이 됨.
- AIIB 가입으로 마닐라 홍수관리 사업 등 필리핀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.

3. 대외거래

□ 2016년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폭 대폭 축소

- 2013~15년에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BPO 산업과 관광업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세가 지속됨.
- 2016년에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급증*으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2015년 73억 달러에서 2016년 6억 달러로 축소됨.

* 자본재 수입액(억 달러): 161('14년) → 196('15년) → 274('16년)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 ^e	2017 ^f
경 상 수 지	11,384	10,756	7,266	602	-315
경 상 수 지 / GDP	4.2	3.8	2.5	0.2	-0.1
상 품 수 지	-17,661	-17,331	-23,309	-34,079	-37,891
수 출	44,512	49,824	43,197	43,444	48,559
수 입	62,175	67,155	66,507	77,524	86,450
외 환 보 유 액	75,689	72,057	73,964	73,433	75,995
총 외 채 잔 액	78,489	77,021	77,650	74,939	74,009
총외채잔액/GDP	28.9	27.0	26.6	24.6	22.4
D. S. R.	7.8	6.0	5.3	6.6	7.0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

- 외환보유액은 2010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013년 75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5년 74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75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함.
- 2016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*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대폭 축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734억 달러를 기록함. 2016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8개월 수준, 단기외채 대비로는 4.6배 수준으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.

* FDI 유입액(억 달러): 37('13년) → 57('14년) → 56('15년) → 79('16년)

□ 경제규모 대비 외채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

- GDP 대비 외채 비율은 높은 경제성장세 등에 힘입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에는 24.6%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낮은 수준임. 또한 총외채 중 중장기 외채 비중이 약 82%로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.
-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은 6~7%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원리금상환액이 증가*함에 따라 전년 5.3%에서 6.6%로 상승함.

* 원리금상환액(억 달러): 63.5('14) → 55.8('15) → 71.4('16) → 82.4('17)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두테르테 현 대통령,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권력기반 확보

- 두테르테(Duterte) 현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, 범죄근절, 빈곤해소 등의 선거공약에 힘입어, 2016년 5월 대선에서 약 39%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 중임.
- 동년 6월 취임 이후 아키노(Aquino)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, '마약과의 전쟁(Drug War)' 등 부정부패 척결, 빈곤

퇴치 등을 추진하여 2017년 1월에는 지지율이 83%를 기록함.

- 다만, ‘마약과의 전쟁’ 선포 후 약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해되는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계층 간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 상존

- 2012년 기준으로 국민의 13.1%가 일평균 1.9달러(2011년 구매력평가 기준)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, 2015년 기준 국민의 21.6%가 빈곤층으로 중산층이 미약함.
- 필리핀의 지니지수는 2012년 46.1에서 2015년 44.4로 하락하였으나, 베트남(37.6, 2014년), 태국(37.9, 2013년), 인도네시아(39.5, 2013년)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.

□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존재

- 이슬람 지역인 민다나오* 지역에서 모로민족해방전선(MNLF), 모로이슬람 해방전선(MILF, '79년 MNLF에서 분리), IS(Islamic State)와 연계된 아부 사야프(Abu Sayyaf), 방사모로 이슬람자유전사(BIFF) 등 이슬람 단체가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지속하고 있음.
- *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이 이주하면서 이슬람 세력과 필리핀 정부 간 무력 대치상태 지속
- 2017년 5월 만다니오 섬에서 발생한 이슬람 반군과의 교전으로 민다나오 섬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최근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.
- 공산 반군인 신인민군(New People's Army)은 규모가 약 3천 700여 명으로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루손섬과 민다나오 섬을 거점으로 토지개혁, 연립정부 구성 등을 주장하며 정부 관계자 등을 겨냥한 무장 투쟁을 이어옴.
- 2016년 8월 정부는 공산 반군과 평화협상을 재개하면서 무기한 휴전에 합의하였으나, '17년 2월 반군 측이 휴전 철회를 선언한 이후 동년 4월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등 휴전 철회와 협상을 반복하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일본과는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으로 우호적 관계 지속

- 일본은 필리핀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2008년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(EPA) 발효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.
- 2017년 1월 필리핀을 방문한 아베 일본 총리는 향후 5년간 필리핀에 85억 달러 규모의 원조 및 투자 지원을 약속함.
- 양국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라는 외교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중국 영유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에 합의('13. 1월)하는 등 외교적 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음.

□ 미국과 경제, 군사,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

- 미국은 필리핀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미국 체류 필리핀인은 300만 명, 필리핀 체류 미국인은 10만 명에 달하는 등 경제·사회적 유대 관계가 높음.
- 양국은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(Mutual Defense Treaty)에 따라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이슬람세력 진압 지원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이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.
- 중국과의 남중국해* 영유권 갈등 고조로 2014년 4월 미국의 필리핀 군사기지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'방위협력확대협정(EDCA)'을 체결한 이후 2016년 1월부터는 8개 군사기지를 미군이 사용하도록 허가함.
- * 남중국해는 원유(110억 배럴), 천연가스(190조 ft³)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 있고, 전 세계 해상무역량의 40% 이상이 통과하는 곳으로 아시아 해상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인식

□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관계악화 가능성 잠재

- 중국은 2013년 이후 필리핀의 최대 수입국으로 경제 관계는 밀접하지만,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양국 관계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.
- 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상분쟁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(PCA)에 중재를 요청('13.1월)하였고, 2016년 7월 PCA는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음.

그러나 중국은 동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필리핀에 대한 경협지원*으로 분쟁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함.

- * 중국은 2016년 10월 필리핀에 대해 150억 달러의 투자와 90억 달러의 차관 제공 등 240억 달러 규모의 경협지원을 약속함.
-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기부양과 빈곤탈출을 추진하는 ‘두테르테노믹스’ 실현을 위해 중국 주도의 AIIB 가입,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 요청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등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

-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(’84년, ’87년, ’89년, ’91년, ’94년)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함.
- 한편 2017년 3월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액은 단기 15.6억 달러, 중장기 24.8억 달러 등 총 40.4억 달러이며, 이중 연체액이 없는 등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.

2. 국제시장평가

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- 국제신용평가사는 높은 경제성장률, 낮은 외채 및 정부채무 비율 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C1 (2016. 9)	C1 (2015.11)
OECD	3등급 (2016. 6.)	3등급 (2015. 6.)
Moody's	Baa2 (2014.12.)	Baa3 (2013.10.)
Fitch	BBB- (2017. 3.)	BBB- (2016. 4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** 1949년 3월 3일(북한과는 '00년 7월 12일)
- 주요협정:** 이중과세방지협약('86년), 범죄인인도조약('96년), 투자보장협정('96년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'03년), 무상원조협정('14년),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('16년)
- 해외직접투자 현황:** 우리나라의 제20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
 - 우리나라의 필리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기타 운송장비, 전자부품·통신장비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7년 3월 말 기준 35억 달러(1,612건)를 기록함.
- 교역규모:** 우리나라의 제20위 교역 대상국으로 무역수지 흑자 지속
 - 필리핀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13대 수출 대상국 및 28위 수입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는 필리핀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.

<표 4>

한·필리핀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주요품목
수 출	8,783	10,032	8,318	7,278	반도체, 석유제품, 자동차 등
수 입	3,706	3,331	3,252	3,229	반도체, 동제품, 과실류 등
합 계	12,489	13,363	11,570	10,507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2016년 경제성장률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등에 따른 견고한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6.9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 2017년에도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필리핀은 6%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.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, 풍작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1.8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, 2017년에는 식료품 가격상승과 소비세 인상 등으로 3% 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-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인프라 및 교육·보건 서비스 지출 등 재정지출 확대로 -2.4%로 확대되었으며, 2017년에도 두테르테 정부의 인프라 등 예산 확대 편성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-2.8% 수준으로 전망됨.
-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BPO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품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며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0.2%로 하락함.
- 두테르테 현 대통령은 아키노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, 부정부패 척결 등을 추진하며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. 다만 빈부격차 지속,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잠재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.
-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, 경제규모 대비 25% 수준의 낮은 외채 비율과 단기외채 대비 4.6배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대외지급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.

선임조사역 김찬수 (☎02-6255-5704)

E-mail: avik@koreaexim.go.kr